

» 2017 하반기 종계·부화 전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업체간 경쟁이 변수



신 창 순

(주)농업회사법인삼화원종 부장

날씨가 더워지면 당연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지난 2일 또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상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약 6개월간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해왔음에도 이번 재발로 소비가 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고공행진을 하던 육계시세는 추락하고 병아리 시세 역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복 병아리 생산량 증가로 상반기에 겪던 병아리 수급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는 중이다.

생산량이 증가되는 원인은 2016년 하반기 종계입식량 증가와 환우계 및 연장생산 계군의 증가 때문이다. 이러한 물량들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말부터 병아리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있으며 6월에는 거의 전년도 물량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살처분으로 인한 생산감소를 만회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적어도 말복병아리가 입추되는 7월초까지는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되면서 예상이 빗나가고 말았다. 따라서 연장생산 계군과 환우계는 말복병아리 생산 이후에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생산 계군과 환우계가 도태된다 하더라도 9월부터는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수급정책에서도 근본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다. 즉 구매에 의존하던 수급정책에서 자체종계 비중을 높이고 거래처의 다변화와 종계 농장과 부화장의 지역적인 분산정책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자체종계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병아리 생산 물량이 많으면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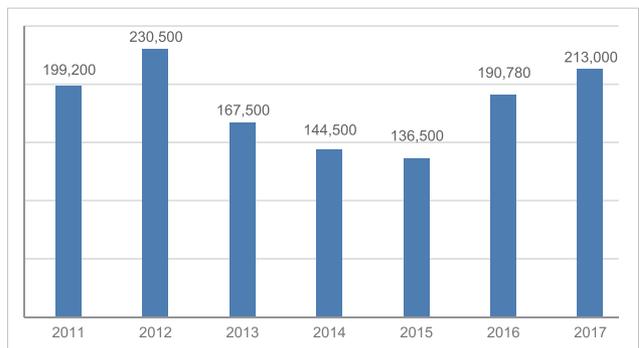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사상 최대의 호황 그리고 도계장의 신축과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금년도에는 최소 730만수 이상이 입식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현재의 닭고기 소비량으로 볼 때 매우 많은 양임에 틀림 없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불확실성과 업체간의 경쟁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최소 730만수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물량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심각한 불황이 올 것은 자명하다. 과거에는 불황이 오면 인위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었다. 효과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없었을 때도 있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율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와 같은 인위적인 수급조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수급조절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육계산업은 국내외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치열해 지는 경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원종계와 종계의 입식물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도 하반기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원종계(GPS) 수입현황

우리나라 원종계는 주로 1월과 7월에 수

입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초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고 있어 1월에 수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1월 수입은 선택의 여지 없이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했다. 다행히 모든 원종사가 수입을 완료하고 보름 정도 이후인 3월 1일에 미국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천만 다행이었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발생일은 6월 5일로 국내의 상황과 비슷하게 연중발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마지막 발생일은 3월 13일로 일반적으로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라야 9월이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의 수입일정보다는 2달 정도 늦어지게 되지만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수입일정이 불투명 하다는 것이다. 이번 겨울에도 발생하게 된다면 내년 9월이나 수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일년 만에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계병아리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종계농장은 물론 육계농장과 도계장 까지 연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종계 수출국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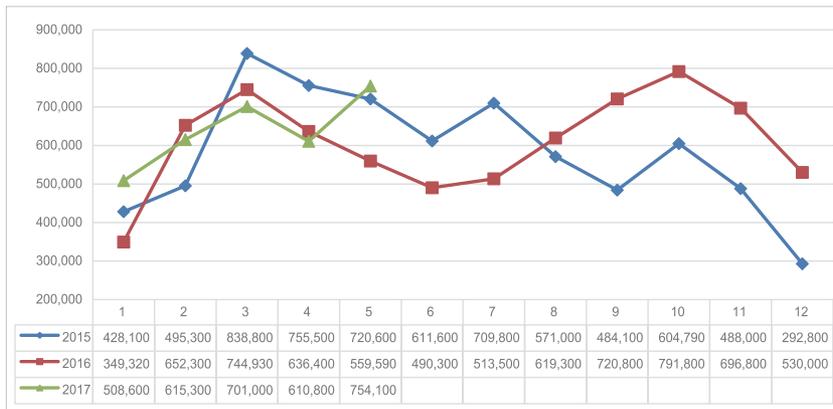


〈도표1〉 연도별 GPS 수입량(2017년은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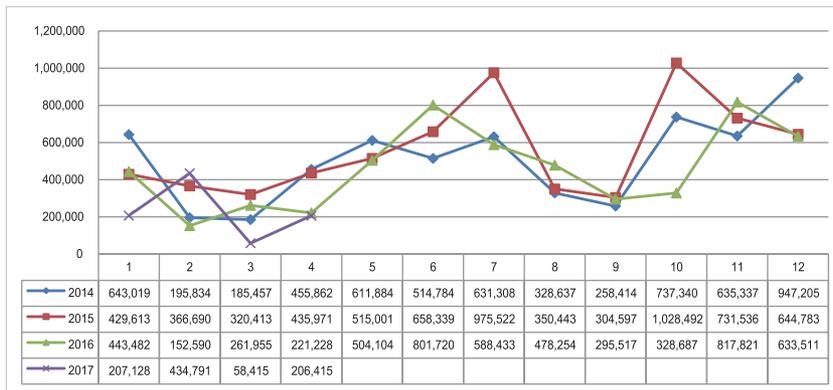
빨리 수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단위로 되어 있는 수입위생 조건을 주단위로 완화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 원종계 수입실적은 D 라인 기준 82,500수이며 하반기에는 최소 12만수 이상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수입이 된다면 20만수 정도 수입되기 때문에 약 900만수의 종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계산상으로는 충분한 양이지만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많은 물량은 아니다. 앞으로의 소비증가와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최소 20만수 이상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종계(PS) 입식동향

주로 병아리 구매에 의존하던 계열사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한 병아리 시세와 육계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보이면서 병아리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 종계입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계열사들의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부화장과 개인농장들도 적극적인 종계입식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표2〉 종계(PS) 입식현황



〈도표3〉 육용종계 도계실적

계열사들이 구매량을 늘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당장에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고 변수가 없더라도 자체종계를 가지고 수급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설비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어 당분간 종계입식량은 필요량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365만수가 입식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역시 비슷한 물량이 입식 된다면 금년도 입식물량은 약

730만수가 된다.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 사실 이 정도의 증계가 입식 되고 전량 생산에 가담하게 된다면 당연히 불황이 올 수 밖에 없다. 과거와 같은 인위적인 수급조절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장기간에 걸쳐 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시장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시장기능이 작동할 때 농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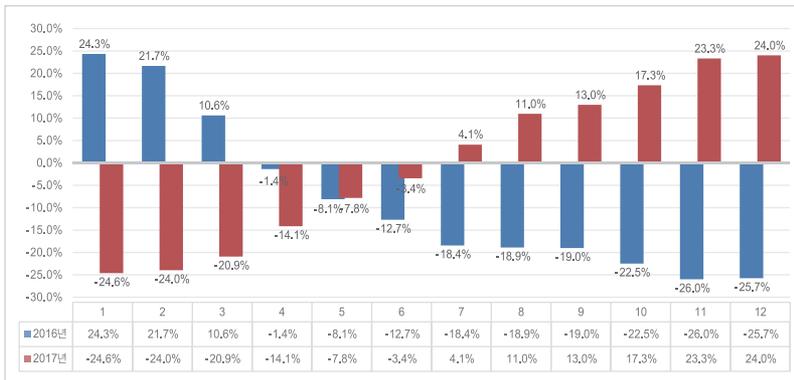
3. 실용계(CC) 생산잠재량

2015년도 하반기와 2016년도 상반기 병아리 생산량은 감당할 수 없는 양 이었고 결국 병아리 감축 사업으로 이어졌다. 올 하반기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병아리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가 나쁠 때는 끝없는 터널에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시세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것만 같다.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소비감소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가 회복된다면 시세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무더위가 찾아와 생산성이 하락하여 시세가 더 유지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철

새의 덕분으로 또 한번의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하지만 시황은 한 순간에 변해버리고 만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버리고 냉정히 판단하여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만약 올 여름에 폭염이 찾아온다면 8~9월 약 2달 정도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8~9월부터 불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북 병아리 생산 이후에 성(노)계와 환우계가 도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노)계와 환우계가 도태되더라도 연말에는 생산량이 매우 많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비까지 감소한다면 치명적일 것이다. 10월 이후의 생산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세 조정하는 노력은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러스가 이미 상재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육계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복병을 만나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



〈도표4〉 CC생산잠재량 증감률



업의 명암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안정적인 산업구조가 되어야만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을 좀 방해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건전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맺는다. **양계**

농장주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해드립니다.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에어덕트 전문

부성축산

대표 : 이재완

대구시 북구 관음동

TEL : (053) 324-7752

FAX : (053) 324-7736

H·P : 010-4000-9023

010-4805-7752